'문화재에서 노니는 가을밤 나들이'

전주문화재야행, 23~24일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개최

가을 선선한 밤공기와 함께 문화재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22 전주문화재야행(이하 전주야행)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문화재와 함께 전주의 아름다운 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주야행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야행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만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를 슬로건으로, 8개 섹션의 29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이번 야행은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와 발맞춰 사전예약제로 진행됐던 지난해 야행과는 달리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은 '문화재 치유의 공간'과 '경기전의 밤', '경기전 좀비실록' 등이다.

먼저 '문화재 치유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치유의 명상 △차(茶)회 △국악 △움직임 △휴식으로 5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야행객들은 경기전을 거닐며 명상과 다도를 즐기고, 무용과 국악을 감상하며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주문화재야행-문화재 치유의 공간 스케치

또한 '경기전의 밤'의 경우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출연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다양성을 앞세워 창작활동을 하는 국악 실내악 단체와 단성음악인 판소리에 화성을 입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판소리 합창단 등이 대거 출연해 경기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전주야행의 대표 킬러콘텐츠인 '경기전 좀비실록'은 조선의 실록을 지키는 좀비를 피해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고, 실록을 완성하는 공포 역사 체험프로그램이다. 야행객들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실록을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을 엿보고, 짜릿한 스릴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야행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다양한 힐링 영상을 송출하는 '문화재 미디어 공간' △한복생활을 장려하는 '문화재 드레스코드' △경기전과 조선의 역사를 유쾌하게 설명해주는 '경기전 일타강사의 수학여행' △조선왕조실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관에게 듣는 실록의 진실'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선조의 그림을 찾는 '문화재 숨은 그림찾기' △지역의 원천 스토리를 구연동화와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전주사람 전주이야기' △대규모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경기전 진검승부터' △'문화재 신분 상승게임' △전주야행표 퍼레이드 '경기전 문화재야행 행렬' 등이 펼쳐진다.

이번 전주야행기간 중 경기전은 밤 11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한옥마을역사관, 전주전통술박물관,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내 문화공간 3곳을 10시까지 특별야간 개방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야행추진단 관계자는 "기존의 전면 온라인과 사전예약제 같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축제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전주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축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선정한 최우수야행에 등극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꼭 가봐야 할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됐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관광객인 28만여 명을 기록한 바 있다.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일정은 전주야행 누리집(jeonjunight.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김경남 3회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서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김경남 3회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력 단절 예술가인 김경남 작가는 잠시 멈췄던 예술 활동을 재단의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따뜻하고 밝은 색감의 붓터치를 잘 살린 작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가족과 자연의 모습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며 "세안 후 잠자리에 들듯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드로잉이 이번 3회 개인전 특징"이라고 전시회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단에서는 도내 시각분야 신진·경력 단절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해 전시 공간 무료 대관과 홍보를 지원하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해 시각분야 예술가들의 활동의 기회 제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김경남 작가 '엄마의 정원'

gallery 숨 공감·공유 '국형원 개인전' 개최

국형원 개인전이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숨다'라는 전시명으로 열린다.

gallery숨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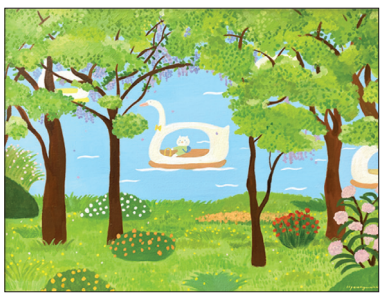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숨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길고양이가 많다. 그 중 한 자리에 머물며 유독 사람들의 이쁨을 차지하는 아이가 있는데 나 역시 그 아이를 가장 좋아하고 이름을 '양말이'라고 지어줬다. 발의 모양이 양말을 신은 것 같아서다. '양말이'는 매일 풀 숲 사이에 앉아있다. 어느 날은 밥을 주기 위해 양말이를 부르고 있었는데 문득 '양말이는 지금 숨어있는 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로부터 다른 무리로부터 떨어져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말이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선이나, 보이지 않지만 경쟁하고 있는 상황들. 성장하기 위해 나를 보여주고 당당해져야 하는 순간들은 가끔 힘들게 느껴진다.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아슬아슬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하는 그렇지만 잘 이겨내고 나아간다면 그만한 희열도 없을 것 같은 기분 말이다. 그런 순간들은 눈앞의 큰 바위처럼 느껴져 있어 숨어버리고 싶을때가 있다. 이번 전시는 그런 순간의 마음을 표현한 전시다.

한편 작가는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조형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국형원 작가 작품

'완주군민 덕분에, 문화도시 덕분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17일 주민 다채로운 이야기 한마당 추진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는 오는 17일 14시, 완주문화도시 시민추진네트워크 '완주군민 덕분에, 문화도시 덕분에'를 개최한다.

'완주군민 덕분에, 문화도시 덕분에'는 다양한 완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참여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문화도시 사업과 함께 성장해 온 주민들의 다채로운 이야기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완주군은 2018년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부터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받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문화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화적 혁신을 이뤘다는 평을 받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성과평가에서 1위, '선도도시'에 선정됐다.

17일 진행되는 행사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문화도시 조성과정과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완주 문화도시사업 및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다.

'내 삶을 바꾼 나의 문화도시 이야기' 시간에는 완주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대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나와 이웃, 마을,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과 경청의 시간이다.

다양한 문화도시 활동주체 간 교류의 장도 마련되어 있다. 삼례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듀오 '세미콜론', 구이면 이장들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모악이장밴드' 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가들의 공연을 함께 즐기며 이웃과 문화로 만나고 웃음과 감동이 있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윤걸 센터장은 "이번 자리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온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라며 "문화도시는 시민의 힘과 뜻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군민들의 내재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도적인 지역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주고 받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춤, 사위' 광주서 24일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5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무용단 정기공연 '춤, 사위'를 개최한다.

무용단은 민속춤을 비롯해 궁중정재, 춤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국악원 대표창극, 기획, 상설 등 타 장르 공연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참여해 무용단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확립해 왔다.

이번 무용단 정기공연은 '춤, 사위'로, 시간의 흐름속에 변형된 우리 춤 본연의 모습을 찾아 올곧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1부에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궁중정재 처용무 △국가무형문화재 학연화대합설무를, 2부에서는 △설장구춤 △살풀이와 지전춤 △소고춤 등 신명으로 잇는 춤사위를 펼친다.

한편 이번 무용단 정기공연 '춤, 사위'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콜센터(1899-5566)와 홈페이지, 현장매표 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일환 성평등전주 '공간 기억 접속' 展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전북예술나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와 함께하고 있는 송원·소영진·이근요·정유진·최산하 등 5명의 작가가 오는 19일 '공간 기억 접속'이라는 주제로 물왕멀로(구 선미촌) 내 시티가든 기억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 기억 접속'展은 파견 예술인들이 성평등전주와 협업 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을 설치 및 영상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작품 전시를 통해 선미촌 기억공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널리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한편 전시는 19~26일까지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